

한쪽이 줄이면 기회라 생각한다.

□ 취재/김재서 기자

1. 서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육계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취지 아

래 성장해온 한국의 계열화사업은 1980년대 후반 육계관련 분야의 노력과 관심속에 통합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게 되어 육계산업의 한 획을 긋는 큰 축으로서의 발전을 해오고

있다.

정부 또한 1985년 ‘닭 계열화사업 촉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육계 계열화 사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나타내었다.

국내에 가장 많이 도입되어 있는 계열화방식은 계열주체가 사료, 병아리, 약품 등 생산자재를 농가에 공급하고 일정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유통, 판매까지를 맡아서 운영하는 수직적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며 보너스제를 도입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경영의 주도권이 계열



주체에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농가가 소외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계열업체가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탁사육 방식에서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농가에게 판매하고 사육된 닭을 납품받는 수평적 형태로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와 농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의 경제 한파로 인하여 소비감소가 나타나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략 한국 육계산업에서 1,200여 농가가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계열업체가 차지하는 생산 비율을 추정하여 봄으로써 어려움 속에서 불황타개책 마련에 고심하는 관련 각 분야의 상호이해를 구하는데 보탬을 주고자 한다.

2. 육계업의 최근 동향

육계 생산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수입원은 육계값이므로 생산자가 보호되고 발



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육농가의 경우 생산원자재는 물론 육계판매과정에 따른 가격결정에 영향을 발휘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가격변동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육농가의 불안정은 산업 전체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육계 계열업체의 발전은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데서 특히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육계관련 상황들을 살펴보면 '97년 12월 IMF한파에 따른 소비위축의 우려로 병아리 입추나 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97년의 육계사료 전체물량은 기대 이하에서 감소가 되었는가 하면 '97년 12월과 지난 1월의 육계 사료 생산량은 오히려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모두를 당혹하게 하였다.

육용종계 입식과 실용계 입추 또한 증가를 가져와 1월의 육계값에 악영향을 주었고 2월 들어 닭값이 '96년 4월 이후 최고시세인 kg당 1,700원까지 오른 것은 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병아리 랜더링 등 생산감축 노력과 유통부분에서 가격유지를 위해서라고 보이는데, 많은 도계장에서 비축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어 향후 육계가격형성에 먹구름이 일 것으로 보인다.

3. '97년도 계열업체 현황

1997년 육계관련 분야 중 계열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육용종계의 경우 전체 입식물량의 약 39%를 차지하였으며, 실용계 생산수수는 약 35%, 닭고기 시장 점유율의 경우에는 약 47%를 점유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자체생산 물량외에 약 12%를 외부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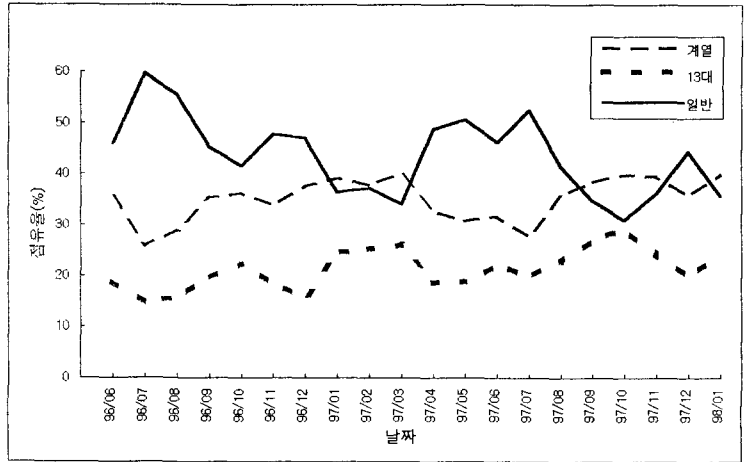
또한 종계입식수와 실용계 생산수에서 약 4.5%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생산성 저하와 계열주체의 육용종계 도태시기가 2~3주 정도 빨라져 생산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표1 참조)

표1. '97년도 계열업체 점유율

구분	일반	계열
종계입식수 (천수)	60.7% 2,396	39.3% 1,551
실용계생산 (천수)	65.2% 256,816	34.8% 142,726
닭고기시장 점유율(천수)	53.2% 202,464	46.8% 178,400

4. 계열업체 점유율 추이

그림1은 육계 전체 실용계 생산량중에서 계열과 일반 부



〈그림1〉 육계 실용계 생산량 점유 비율

화장 그리고 계열아 아닌 일반 부화장 중 본회에서 조사한 종계·부화업을 하고 있는 13개 농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계열업체의 경우 점점 그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13개 부화장의 경우에도 완만한 점유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13개 부화장을 제외한 일반부화장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계열업체와 13개 부화장의 경우 변동폭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일반의 경우 점유율의 최저와 최고가 28.6%의 큰 차이를 보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유율을 실용계 생산량수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2)

이를 살펴보면 전체 육용 실용계 생산물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량 변화의 폭이 컸던 일반부화장의 수변동이 전체 생산물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과 13개부화장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일반 종계·부화장의 경우 약 1,000만수에서 2900만수까지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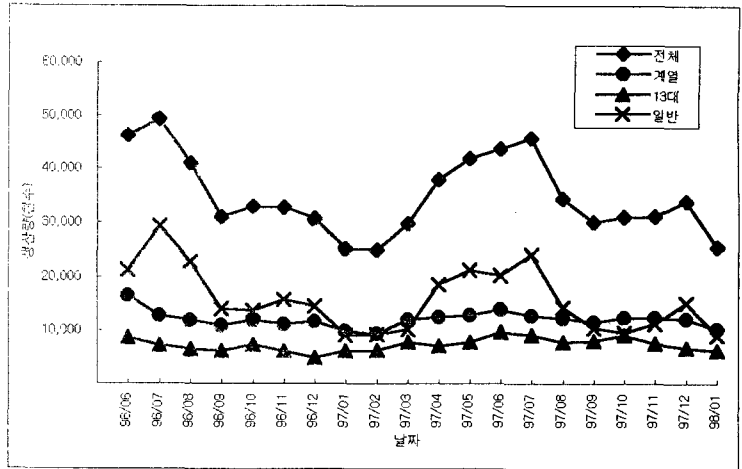
이는 계절적인 요인 이외에도 강제환우나 복경기를 의식한 것으로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되는 시점에서 실용계를

생산하는 육용종계의 환우를 실시하여 80~90일 후 다시 생산에 가담, 점유율이 급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큰 변동의 추이는 해당시기의 육계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높은 4천9백만수의 실용계 생산수수를 나타낸 '96년 7월을 전후하여, 이들 육계가 출하되었던 '96년 8월 이후의 육계가격은 kg당 517원으로 크게 폭락 되었었다. 또한 4천5백만수가 생산되었던 '97년 7월의 경우에도 8월 이후의 육계가값이 717원까지 내려 갔었다. 최근에는 '97년 12월 생산 감축의 분위기 속에서 계열주체와 13개 부화장의 실용계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일반종계, 부화장의 생산량은 소비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 4백만수가 늘어났으나 1월의 육계가값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종계도태 내지는 일부 환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5. 결 론

생산자의 안정없이는 다른 부문의 안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생산자의



〈그림2〉 육계 병아리 입추 점유율

안정은 바로 소득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계열화사업은 우리나라 육계시장 구조의 특수성과 각 부문의 기존 생산자와의 경쟁속에서 계열화의 여러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고 국내시장의 소비한계와 물량경쟁으로 어찌보면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서로 상처만 입힌 결과가 된 것이 현실이며, 수직적 통합구조가 가져오는 생산자에 대해 균림하는 듯한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육계가값의 안정을 위해 계열화를 시작하였던, 계열화를 통해 육계가값의 안정을 꾀하려던 간에 계열주체와 농가 모두가 건설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서

로 믿고 의지할 때 상호간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육계업이 투기성 사업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올 해 경제여건으로 볼 때, GNP가 6,757달러였던 '91년의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97년에 비해 20.1%가 낮다. IMF한파 이후 생산감축을 통해 가격안정을 이룰 수도 있는 기회를 일시적인 호기로 인식하여 결국 모두 같이 어려워지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이 강조된다.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구축과 소비위축에 대비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양계**